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이필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04
----------	--------

제안연월일 : 2016. 10. .

제안자 : 이필레, 이봉수, 이동주,
백남환, 전승학, 송병길

1. 주 문

1974년 도입 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시행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 하는 등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최근 가전기기의 보급 확대와 대형화 및 이상기후에 따른 냉난방 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은 전기요금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전체 전력의 80%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놔둔 채 13.5% 밖에 되지 않는 주택용 전기 사용을 마치 전력난의 주범처럼 몰아가는 현재의 누진제는 많은 불합리함을 갖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다. 또한 지난 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지출한 전기요금은 약4,806 억원으로 학교당 연간 평균 3,5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음.

라.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누진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등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함

3. 이송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최근 가전기기의 보급 확대와 대형화 및 이상기후에 따른 냉난방 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지난 1998년 163kw에서 2014년 226kw로 증가하였고, 300kw를 초과사용한 가구는 5.8%에서 28.7%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올여름 서울에서만 폭염 특보가 무려 41일이나 발령되며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였다.

살인적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서민들은 폭염보다 더 무서운 전기료 누진폭탄 걱정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지 못한 채 전국 곳곳에서 한 맺힌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1974년 1차 석유 파동 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산업육성을 위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도입한데서 기인한다.

전기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공공재이며, 누진제는 에너지절약과 사회적 형평성의 중대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2014년 기준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불과 13.5%인 것을 감안할 때 가정의 전기 사용을 마치 전력난의 주범처럼 몰아가는 현재의 누진제는 많은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루종일 문을 열어 놓고 장사하는 상가와 추워서 겹옷까지 입고 근무하는 사무실, 과다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체 등 전체 전력의 80%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놔둔 채 각 가정에서만 부담을 강요하는 현행 요금체계는 심각한 사회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전기가 부족하던 시절 일방적인 불편 감수와 희생을 강요했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과 상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개편을 통한 누진제 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 대한 전기요금도 심각하다. 지난 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지출한 전기요금은 약4,806억원으로 학교당 연간 평균3,5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학교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의 비중은 19%에 달해 72%의 학교가 전기요금을 내기위해 다른 교육에 써야 할 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의 '짬통교실 해소대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전국 1만 988개 초·중·고등학교 중 여름철 26.5%, 겨울철 42.6%의 학교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과 교육기관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마포구의회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누진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는 등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대 변화와 경제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을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및 전기요금 인하 등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201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